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

Influences of Personal Variables on Children's Peer Bullying

-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ternal Affection and Teacher's Support -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서미정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및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김경연

Dept. of Child Development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Seo, Mi-Je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Kyong-Ye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of personal variabl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o the peer bullying experienced by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One result was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in the bullying but not in the victimization. The victimization of boys was influenced by withdrawal and assertiveness. Aggression, emotional regulation and withdrawal were important predictors for bullying, whereas withdrawal and aggression were important predictors for victimization among girls. The interactive effect of withdrawal and teacher's support on victimiz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boys, whereas the interactive effect of aggression, maternal affection and teacher's support on bully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girls.

주제어(Key Words): 또래괴롭힘(peer bullying), 개인적 변인(personal variables), 모의 애정(maternal affection), 교사지지(teacher's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Mi-Jeong Se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Hou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Changjeon-dong K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2761 Fax: 82-51-513-7976 E-mail: bella2001@pusan.ac.kr

I. 서론

아동은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는 등 사회적 발달이 촉진되지만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한 유형인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아동은 사회적 발달의 손상뿐 아니라 적응력의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래괴롭힘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동이 한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을 의미한다(Olweus, 1993). 이때 부정적 행동이란 상대를 때리거나 싫어하는 일 역지로 시키기 등 신체적, 물리적 공격과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집단에서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가해아 및 피해아는 비행, 범죄적 폭력(박미연, 2000; Schwartz, Dodge, & Coie, 1993), 학교 회피(Ladd & Burgess, 2001), 낮은 자아존중감(도현심, 최미경, 1998; Rigby & Slee, 1993), 외로움(임지영, 1998; Perry, Williard, & Perry, 1990) 등 적응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 또한 또래괴롭힘 관련 연구들은 아동기에 또래 괴롭힘에 관여하는 경우 이후의 삶에서 폭력, 범죄, 외로움, 사회적 위축 등 지속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Olweus, 1993).

이와 같이 장·단기적으로 적응 문제를 야기시키는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아동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받는 개인적 변인은 공격성이다. 공격성과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서미정, 김경연, 2004; 이상균, 1999; Bernstein & Watson, 1997)에 의하면 일관되게 가해아의 높은 공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공격성향이 높은 아동은 또래간 상호작용에서도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가해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해아들의 공격행동도 높다는 연구결과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최진희, 2000; Perry, Perry, & Kennedy, 1992; Zarkriski & Coie, 1996)이 있다. 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주의집중의 문제를 가지며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짜증나고 긴장하게 하므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성이 가해 및 피해 모두와 관련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가해와 피해간의 중복발생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가해와 피해는 정적으로 관련되며(김희화, 2001; Tritt & Duncan, 1997), 가해와 피해 둘 다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해 또는 피해만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다는 결과(서미정, 김경연, 2004; 이해경, 김혜원, 2001)들은 가해와 피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래괴롭힘 가해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밝힐 때 피해수준을, 또 피해와 관련성을 검토할 때 가해수준을 통제하는 통계적 통제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과 관련되는 개인적 변인으로 위축을 들 수 있다. 우울, 불안, 슬픔, 수줍음과 같은 위축된 정서유형은 주로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보고된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이경남, 2001; Schwartz et al., 1993). 예를 들어, 이점숙과 유안진(1999)은 위축의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아동들은 직접적인 괴롭힘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즉, 위축된 행동의 표출은 또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게 하여 또래괴롭힘 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Troy & Sroufe, 1987). 이와 같이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또래괴롭힘은 가해와 피해라는 대립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위축과 가해와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개인적 변인 중 정서조절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이동시키고 덜 부정적 자극이나 긍정적 자극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데(Rothbart, Ahadi, & Evans, 2000), 정서조절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Guthrie, Fabes, Reiser, Murphy, Holgren, Maszk, & Losoya, 1997). 정서조절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할수록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이 증가하였다(서미정, 김경연, 2004;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즉,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되므로(Hoffman, 1982) 또래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한 유형인 또래괴롭힘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은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또래괴롭힘 관여라는 점에서 피해행동에 대한 정서조절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관계 문제의 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 거론되어왔다. 즉, '타인에게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인 자기주장력은 대인간 관계유지와 형성에 중요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괴롭힘 관여유형별 자기주장력의 차이를 비교한 한영주(1999)의 연구에서는 피해아가 가해아, 가해·피해아 및 일반아에 비해 자기주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해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는 물론 2년의 경과에도 대인간에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또래를 괴롭히는데 더욱 관여한다는 보고(심희옥, 2002)와 가해아는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다른 집단보다도 자기주장력 수준이 가장 높은(한영주, 1999)등 비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자기주장력이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피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 및 학교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김희화, 2001; 이상균, 1999; 정정호, 2000; Olweus, 1993), 이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래괴롭힘 가해 또는 피해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즉, 개인의 취약한 특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환경적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적 변인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후기부터 친구관계가 확대되고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함께 지내게 되지만, 장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정서적 지지를 부모로부터 얻길 원하는 등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요하다.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으로는 부모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경남, 2001) 및 권위적 양육행동(정정호, 2000)이 제시되고 있지만 부모의 수용,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또래괴롭힘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괴롭힘 피해와 가족관계 등에 관해 상당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에서도 가정은 괴롭힘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래괴롭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괴롭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Scaramella, Conger, & Simons, 1999) 또래괴롭힘에 관여할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에게서 얻는 수용, 존중 및 관심이 또래괴롭힘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는 모의 애정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또 다른 환경적 변인으로 교사지지를 들 수 있다. 교사지지는 아동이 교사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으로 사랑, 신뢰, 인정, 도움, 관심등이 포함되는데,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부모나 또래의 지지만큼 중요하다. 또래괴롭힘과 교사지지와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해아든 피해아든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아동은 일반아에 비해 교사로부터 관심과 지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이춘재, 박금주, 2000),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신할수록 피해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된다(정정호, 2000). 또한 한미현(1996)은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의 불안과 공격성 수준이 교사지지를 통해 완화됨을 밝혔으며 강성희와 이재연(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지지의 증가가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인한 가정 적응 및 학업적

적응상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이 처한 위험상황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교사지지의 조절 역할을 밝힌 연구들은 개인적 변인과 또래괴롭힘간의 관련성에서의 교사지지의 조절작용을 시사한다. 하지만 또래괴롭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밝힌 연구들은 조절 변인으로서 가족 및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이 대부분이므로(이해경, 김혜원, 2000; Hodges, Malone, & Perry, 1997), 아동의 사회적 관계 중 교사로부터 얻는 지지의 조절 역할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한편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는 성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이점숙, 유안진, 1999; 이해경, 김혜원, 2001; 임지영, 1998; Bosworth, Espelage, & Simon, 1999; Rigby & Slee, 1991)과 가해 및 피해행동의 예측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이해경, 김혜원, 2001)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을 통제하여, 가해 및 피해 수준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또래괴롭힘과 개인적 변인과의 관련성 및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며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아동의 성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수준별 개인적 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57명이다. 표본추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5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5~6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한 학급씩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표본의 수는 376명이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19명을 제외하고 35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구성에서 남아가 190명(53.22%), 여아가 167명(46.78%)이었고, 학년별 구성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183명(51.26%), 6학년이 174명(48.74%)이었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황성숙(199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초등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가해와 피해 각각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내용은 지난 1년간의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또래간의 괴롭힘 가해 및 피해행동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해 문항은 '나는 한 아이에게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이고 피해 문항은 '다른 아이들이 일부러 노는데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이다. 기존 척도는 가해와 피해의 응답방식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의 중복경험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해 및 피해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험 횟수를 동일한 응답범주에 표시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 1회, 2~3회, 4~5회, 6회 이상'으로 하고 0~4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가해와 피해 각각 0~7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및 피해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이 가해는 .86, 피해는 .87로 나타났다.

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행동평정 척도인 K-CBCL(오경자, 이해련, 하은혜, 홍강의, 1996)중 공격성 척도 9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인 K-CBCL은 부모평정용으로 개발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종종 말썽을 부린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3) 위축

아동의 위축은 김경희(1997)가 제시한 한국아동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서유형 12가지 중 위축 정서인 놀람, 슬픔, 불안, 수줍음, 우울, 공포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아동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경험한다'까지 4점 평정범주에 반응케 했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6~2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4) 정서조절

아동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8)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 중에서 정서조절 하위영역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로 변화시키고 긍정적 정서는 유지시킬 줄 알며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이 .72로 나타났다.

5) 자기주장력

아동의 자기주장력은 Elliot과 Gresham(1991)에 의해 개발된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중 주장 영역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서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4~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4이다.

6) 모의 애정

모의 애정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애정적 양육행동 영역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모의 애정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5~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아동에 대한 수용, 존중 및 관심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7) 교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교사지지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계수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5~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8.2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피해 및 가해를 각각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수준별 개인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또래괴롭힘 관련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간 가해 및 피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해 비교시는 피해를 그리고 피해 비교시에는 가해를 각각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성별에 따른 가해의 비교 결과,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8.10, P<.01$), 남아가 여아보다 가해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피해의 성별 비교 결과, 남아와 여아간에 피해 점수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 및 피해에 대한 공변인의 영향($F=$

<표 1> 성별 또래괴롭힘의 평균과 표준편차

또래 괴롭힘	남 아		여 아	
	n	M(SD)	n	M(SD)
가 해	183	9.09(8.72)	163	5.81(5.51)
피 해	182	10.91(10.31)	157	7.54(8.09)

<표 2>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공변량분석표

(N=332)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가 해	성 별	1	381.734	381.734	8.10**
	피해(공변인)	1	3067.74	3067.74	65.09***
	오 차	329	15505.72	47.13	
	전 체	331	19456.85		
피 해	성 별	1	214.72	214.72	3.03
	가해(공변인)	1	4620.05	4620.05	65.09***
	오 차	329	23351.79	70.98	
	전 체	331	28861.16		

** $p<.01$; *** $p<.001$.

65.09, $P<.001$)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와 피해는 관련성이 높으므로 서로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결과이다.

2.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개인적 변인과의 관련성 및 상대적 영향력

1)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수준에 따른 개인적 변인의 차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수준에 따른 개인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해와 피해를 각각 응답점수 분포에 따라 상위 33%이내인 경우에 상집단, 하위 33%이내인 경우에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가해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는 피해를 통제하기 위해 피해점수가 평균 이하인 집단을, 피해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는 가해를 통제하기 위해 가해점수가 평균이하인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상, 하집단별 t검증의 결과를 성별로 제시하면 <표 3>, <표 4>와 같다.

남아의 경우 위축($t=2.09, p<.05$)이 가해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즉, 가해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위축 점수가 높은 것으

1)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또래괴롭힘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을 감안하여 상위 33%와 하위 33%를 기준으로 상, 하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3〉 남아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수준에 따른 개인적 변인의 차이

변 인	가 해			피 해		
	집단(n)	M(SD)	t값	집단(n)	M(SD)	t값
공 격 성	상(n=33)	18,42(5,33)	1.69	상(n=30)	17,30(4,84)	.60
	하(n=54)	16,26(6,06)		하(n=50)	16,54(5,89)	
위 축	상(n=33)	11,24(3,28)	2.09*	상(n=32)	12,09(3,91)	2.89**
	하(n=59)	9,78(3,18)		하(n=53)	9,77(3,37)	
정 서 조 절	상(n=34)	30,18(5,43)	-1.85	상(n=31)	30,19(5,79)	-1.04
	하(n=58)	32,35(5,42)		하(n=51)	31,57(5,83)	
자기주장력	상(n=34)	15,53(3,36)	0.02	상(n=32)	13,81(4,65)	-2.28*
	하(n=58)	15,52(3,59)		하(n=52)	15,85(3,48)	

*p<.05; **p<.01.

〈표 4〉 여아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수준에 따른 개인적 변인의 차이

변 인	가 해			피 해		
	집단(n)	M(SD)	t값	집단(n)	M(SD)	t값
공 격 성	상(n=25)	19,00(7,31)	2.50**	상(n=18)	19,50(5,62)	3.48***
	하(n=60)	15,43(5,38)		하(n=59)	15,12(4,36)	
위 축	상(n=25)	8,96(2,17)	-1.41	상(n=18)	13,39(4,20)	3.52**
	하(n=59)	9,86(2,89)		하(n=59)	9,71(2,51)	
정 서 조 절	상(n=25)	29,44(4,60)	-2.08*	상(n=18)	31,33(4,79)	-0.97
	하(n=59)	32,41(6,45)		하(n=57)	32,91(6,32)	
자기주장력	상(n=26)	14,19(3,88)	-2.55**	상(n=15)	13,67(4,45)	-2.60**
	하(n=59)	16,27(3,26)		하(n=58)	16,26(3,14)	

*p<.05; **p<.01; ***p<.001.

로 나타났다. 공격성, 정서조절 그리고 자기주장력에서는 가해 수준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피해 수준에 따라서는 위축(t=2.89, p<.01)과 자기주장력(t=-2.28, p<.05)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피해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 불안, 수줍음 등 위축 수준이 더 높고 자기주장력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엔 공격성(t=2.50, p<.01), 정서조절(t=-2.08, p<.05), 자기주장력(t=-2.55, p<.01)이 가해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격성향이 높고 정서조절을 잘 못하며 자기주장력은 부족하였다. 피해 수준에 따라서는 공격성(t=3.48, p<.001), 위축(t=3.52, p<.01), 자기주장력(t=-2.60, p<.01)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피해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위축된 반면 자기주장력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성별로 산출한 것은 〈표 5〉와 같다. 남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은 .01~.43의 범위에 있다. 남아의 가해경험은 공격성, 위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피해경험은 공격성, 위축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자기주장력과는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는 종속변인인 가해경

〈표 5〉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표

변인	1	2	3	4	5	6
1. 공격성		.33***	-.10	-.08	.48***	.40***
2. 위축	.28***		.06	-.06	.21**	.50***
3. 정서조절	-.26***	.04		.32***	-.16*	-.04
4. 자기주장력	-.03	-.16*	.26***		-.08	-.16*
5. 가해경험	.28***	.22**	.01	-.01		.56***
6. 피해경험	.21**	.43***	.11	-.22**	.35***	

주. 남아(n)=161, 여아(n)=146. 대각선 아래수치는 남아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위의 수치는 여아의 상관계수임.

*p<.05; **p<.01; ***p<.001.

험 및 피해경험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은 .04~.50의 범위에 있다. 여아의 가해경험은 공격성, 위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아의 피해경험은 공격성, 위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기주장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독립변인들간 상관계수는 .03에서 .33까지 분포하고 있어 회귀분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아의 경우 또래괴롭힘 가해에 대해서는 위축($\beta=28,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아의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변인은 위축($\beta=.41, p<.001$), 자

〈표 6〉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가 해		피 해	
	남 아	여 아	남 아	여 아
	β	β	β	β
공격성	-.03	.40***	.01	.22*
위축	.28**	-.20*	.41***	.27**
정서조절	-.03	-.22*	.03	-.12
자기주장력	.09	.09	-.26***	-.12
R ²	.08	.23***	.26***	.22***

*p<.05; **p<.01; ***p<.001.

기주장력($\beta=-.26, p<.01$)의 순이며 독립변인들은 피해경험의 26%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아들은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장력이 부족할수록 피해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또래괴롭힘 가해를 예측하는 변인은 공격성($\beta=.40, p<.001$), 정서조절($\beta=-.22, p<.05$), 위축($\beta=-.20, p<.05$)의 순이며 독립변인들은 가해경험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즉,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여아의 가해행동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아의 피해를 예측하는 변인은 위축($\beta=.27, p<.01$), 공격성($\beta=.22,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들은 우울, 불안, 수줍음 등 위축된 정서를 소유할수록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들이 여아의 또래괴롭힘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 2의 분석에서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가 만들어내는 조합에 대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변인,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를 각각 응답점수 분포에 따라 평균이상인 경우에 상집단, 평균미만인 경우에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가해의 분석시에는 피해를 공변인으로 하고 피해의 분석시에는 가해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아의 피해에 대한 위축과 교사지지의 조합과 여아의 가해에 대한 공격성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조합에서만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7〉에 의하면, 남아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해 위축의 주효과($F=15.75, p<.001$)와 위축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F=5.02, p<.05$)가 통계적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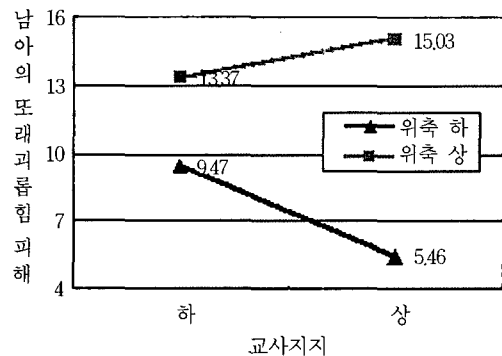
〈표 7〉 남아의 위축과 교사지지에 따른 또래괴롭힘 피해의 공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피해 (N=176)	위축(A)	1	1303.71	1303.71	15.75***
	교사지지(B)	1	45.37	45.37	0.55
	A*B	1	415.33	415.33	5.02*
	가해(공변인)	1	1707.80	1707.80	20.63***
	오차	171	14153.48	82.77	
	전체	175	18007.36		

*p<.05; ***p<.001.

의미하게 나타났다(F(4, 171)=11.64, p<.001). 위축 수준이 높을 때는 남아의 피해에 대한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지만 위축 수준이 낮을 때는 교사지지 수준에 따라 피해 점수가 크게 달라졌다(그림 1). 즉, 위축 수준이 낮을 때 교사지지 수준이 높으면 피해점수가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여아의 또래괴롭힘 가해에 대해 공격성의 주효과(F=8.51, p<.01)와 공격성과 모의 애정의 상호작용 효과(F=4.5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 151)=20.31, p<.001). 공격성 수준이 높을 때는 여아의 가해에 대한 모의 애정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지만 공격성 수준이 낮을 때는 모의 애정 수준에 따라 가해 점수가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현상은 공격성과 교사지지에 따른 여아의 또래괴롭힘 가해의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4, 151)=20.13, p<.001). 즉, 공



〈그림 1〉 남아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위축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표 8〉 여아의 공격성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에 따른 또래괴롭힘 가해의 공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가해 (N=156)	공격성(A)	1	177.64	177.64	8.51**
	모의 애정(B)	1	0.51	0.51	0.02
	A*B	1	95.46	95.46	4.57*
	피해(공변인)	1	1009.89	1009.89	48.38***
	오차	151	3152.06	20.87	
	전체	155	4848.02		
가해 (N=156)	공격성(A)	1	231.47	231.47	11.05***
	교사지지(B)	1	4.63	4.63	0.22
	A*B	1	86.84	86.84	4.15*
	피해(공변인)	1	963.88	963.88	46.03***
	오차	151	3161.77	20.94	
	전체	155	4848.02		

*p<.05; **p<.01; ***p<.001.

〈표 9〉 공격성과 환경적 변인에 따른 여아의 또래괴롭힘 가해의 평균

환경적 변인		공격성	
		상	하
모의 애정	상	8.64	3.50
	하	7.78	5.18
교사지지	상	8.87	3.13
	하	7.76	5.00

격성 수준이 낮을 때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 수준이 높으면 여아의 가해점수가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표 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수준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고 또래괴롭힘과 개인적 변인과 관련성 및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성별 차이를 본

석한 결과, 가해행동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가해경험의 수준이 높다는 보고들(심희옥, 2002; 이해경, 김혜원, 2001; Bosworth et al., 1999)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공격행동에 더 관대하다는 점(Condry & Ross, 1985)에서 볼 때 가해행동 수준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것은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다는 보고들(이해경, 김혜원, 2001; Rigby & Slee, 1991)과 일치하지 않으나 남아가 여아보다 직접적 괴롭힘 피해의 점수는 높았으나 관계상의 괴롭힘 피해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이점숙, 유안진, 1999; 임지영, 1998)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여아들은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은 반면, 남아들은 직접적인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들(황성숙, 1999; Kochenderfer & Ladd, 1996)은 성별에 따른 피해경험의 수준은 또래괴롭힘 하위유형별로 다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또래괴롭힘의 하위유형 중 언어적 괴롭힘이나 관계적 따돌림과 같은 간접적 형태의 괴롭힘에서는 여아의 피해도 남아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성별에 따라 가해 및 피해의 수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변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가해와 피해 각각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결과(이해경, 김혜원, 2001)와 일치하고, 이것은 피해를 당한 아동이 가해아의 공격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가해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힘이 약한 가해아는 상대적으로 힘센 가해아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해와 피해는 중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또래괴롭힘 연구는 가해 및 피해를 통제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또래괴롭힘과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련성 및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해 및 피해

수준에 따른 개인적 변인의 평균차이를 검토한 결과, 가해 및 피해 상, 하집단에 따라 개인적 변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가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위축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위축은 높고 자기주장력은 부족하였다. 여아의 경우엔 가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공격성이 높고 정서조절 및 자기주장력 수준은 낮았으며 피해 상집단은 하집단보다 공격성 및 위축 수준이 높고 자기주장력은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아의 경우 피해에 대한 영향력은 위축, 자기주장력의 순이었으며 여아의 경우엔 가해에 대해서는 공격성, 정서조절, 위축의 순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위축, 공격성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여아에게서만 공격성이 가해 및 피해 모두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간 갈등을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하므로 또래괴롭힘 가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이상균, 1999; Bernstein & Watson, 1997), 또한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짜증나게 하고 긴장시키므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결과(최진희, 2000; Perry et al., 1992; Zarkrski & Coie, 1996)와 일치한다. 서미정과 김경연(200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여아가 가해, 피해, 가해·피해 등 또래괴롭힘에 더욱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공격성이 가해 및 피해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해 및 피해 각각에 관련되는 공격성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공격행동의 내용을 신체적 공격, 통제력부족행동 및 과시우월적 공격의 3가지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토한 한종철과 김인경(2000)은 직접적이고 신체적 공격에서는 가해아가 높은 성향을 보인 반면, 피해아는 가해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 통제가 부족하고 과시적인 행동 등 미성숙한 측면의 공격성을 보인다고 밝혀내어, 공격성 유형별로 가해 및 피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제시해준다. 기존의 연구

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가 통제된 상태에서 공격성과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므로 보다 신뢰로운 결과로 볼 때 여아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가해 및 피해 모두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아의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에서는 공격적 성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위축은 남아와 여아 모두 피해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경남, 2001; 이점숙, 유안진, 1999; Schwartz et al., 1993)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수줍음, 슬픔 등 위축의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아동들은 또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게 하여 또래괴롭힘의 표적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Troy & Stroufe, 1987). 한편 여아의 경우, 위축은 가해 및 피해에 상반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위축수준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은 감소하고 피해행동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경험이 통제되었으므로 여아들은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순수한 가해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여아의 가해에 대한 정서조절의 영향은 가해아는 정서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괴롭힘에 관여한다는 결과(서미정, 김경연, 2004)와 분노조절을 잘 못할수록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이은희 외 2인, 2004)와 일치하며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서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없는 아동은 주의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행동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으며(Parke, Cassidy, Burks, Carson, & Boyum, 1992), 아동이 과잉 각성된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조절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게 되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Hoffman, 1982). 이러한 양상이 여아의 경우에만 나타난 것은 정서 사회화 과정에서 성차로 설명될 수 있다. 남아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분노를 조절하는 반면, 여아는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이지선, 유안진, 1999), 슬픔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여아는 남아보다 상대방이 이를 더 수용해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Zeman & Garber, 1996). 즉, 남아는 정서를 표시하지 않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여아는 타인의 정서상태에 주의를 보내고 보다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서조절을 잘 못하는 여아는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 또래괴롭힘 가해에도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아의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노 조절 훈련' 같은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기술 습득이 요구된다.

자기주장력은 위축 다음으로 남아의 피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특성으로 자기주장력 부족을 밝힌 연구결과(한영주, 1999)와 일치한다. 즉,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 필요한 자기주장력의 결핍은 또래관계에서 획득되는 정서적 지원을 얻지 못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아의 경우에는 피해상집단뿐 아니라 가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자기주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아가 또래괴롭힘에 관여하는 다른 집단보다도 자기주장력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결과(한영주, 1999)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피해아뿐 아니라 가해아 역시 또래관계의 유지와 형성에 요구되는 자기주장력이 부족해 또래를 직,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등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주도적으로 또래관계를 시작하고 또래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자기주장력 증진 프로그램이 또래괴롭힘 피해아는 물론 특히 여아의 경우엔 가해아에게도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에서 환경적 변인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축과 남아의 피해와의 관계는 교사지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여

아의 가해와의 관계는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피해에 대해 위축 수준이 높을 때는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지만 위축 수준이 낮을 때는 교사지지 수준이 높으면 또래괴롭힘 피해행동이 감소하며 여아의 가해에 대해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을 때는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지만 공격성 수준이 낮을 때는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 때 가해행동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공격성과 여아의 또래괴롭힘 가해와의 관계가 모의 애정에 의해 조절되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후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을 나타낸다. 즉, 모에게서 얻는 수용, 존중 및 관심은 자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보살핌, 관대함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모델이 되어 줌으로써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Perry et al., 1988). 또래괴롭힘과 가족관계에 관해 상당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규미 외 2인, 1998)에서도 가정은 또래괴롭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이 강조된 바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Scaramella et al., 1999), 아동의 공격적 성향이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여아에게만 나타난 것은 남아에 비해 여아는 부모에게 좀 더 의존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아가 모의 사랑, 인정 등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사지지는 남아의 경우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와의 관계를, 여아의 경우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지지에 의해 조절되었다는 연구결과(이은지, 2002)와 아동의 공격행동과 불안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교사지지에 의해 완화되었다는 연구결과(한미현, 1996),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가정 적응 및 학교 적응상의 문제가 교사지지 수준에 의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강성희, 이재연, 1992)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몇몇연구들(Salmivalli, Huttunen, &

Lagerspetz, 1997; Sharp & Smith, 1991)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중재전략은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환경의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또래뿐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과 같은 취약한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가 교사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축 및 공격성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는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완화 효과가 있었으나 위축 및 공격성 수준이 높을 때는 환경적 변인이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평균은 높지만 피해경험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다. 둘째, 남아의 경우 가해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 위축 수준이 높고 피해 상집단은 하집단보다 위축 수준은 높고 자기주장력은 부족하다. 여아의 경우 가해 상집단은 하집단보다 공격성이 높고 정서조절을 잘못하고 자기주장력이 부족하며 피해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 위축 및 공격성이 높고 자기주장력은 부족하다. 셋째, 개인적 변인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순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 즉, 남아의 피해에 대한 영향력은 위축, 자기주장력의 순이며 여아의 경우엔 가해에 대해서는 공격성, 정서조절, 위축의 순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위축, 공격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위축이 남아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공격성이 여아의 또래괴롭힘 가해에 미치는 영향은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수준 비교, 또래괴롭힘과 개인적 변인과의 관련성 및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가해와 피해 각각에 대립되는 또래괴롭

힘 경험을 통제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과의 관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름을 밝힌데 의의를 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가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남아의 가해행동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개인적 변인의 탐색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또래괴롭힘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성희, 이재연(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75-188.

김경희(1997). 한국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43-56.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119-142.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15.

문용린(1998). 초등학교에서의 정서 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현장교육탐구 보고, 98(1),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구원.

박미연(2000). 초등학교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미정, 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과의 횡·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오경자, 이해련, 하은혜, 홍강의(1996). 한국판 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서울의대 정신의학, 20(1), 45-52.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기정학회지, 39(8), 37-52.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지(2002). 아동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이점숙,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이춘재, 박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이해경, 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이해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호(2000).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감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주(1999). 중, 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중철, 김인경(2000). 또래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황성숙(1999). 학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osworth, K., Espelage, D. L., & Simon, T. R.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4), 408-438.
- Condry, J. C. & Ross, D. F. (1985). Sex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gender label on the perception of aggress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225-233.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 (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2), 295-311.
- Elliot, S. N. & Gresham, F. M. (1991). *Social skills intervention guide*. American guidance services.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Linkages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s at home and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In P. K. Smith, W. Craig, & E. Hennessy(chair),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SSBD, Berne, Switzerland.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 1579-1601.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Parke, R. D., Cassidy, J., Burks, V. M., Carson, J. L., & Boyum, L. (1992). Familial contribution to peer competence among young children: The role of interactive and affective proces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 behavior.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30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 & Slee, P.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3), 357-368.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22-135.
- Salmivalli, C., Huttunen, A., & Lagerspetz, K. M. J. (1997). Peer networks and bullying in schoo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05-312.
- Scaramella, L. V., Conger, R. D., & Simons, R. L. (1999). Parental Protective Influences and Gender-Specific Increases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2), 111-141.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harp, S. & Smith, P. K. (1991). Bullying in the UK schools: The DES Sheffield Bullying Project. *Early Child Development Care, 77*, 47-55.
- Tritt, C. & Duncan, R.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young adult self-esteem.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36*(1), 35-44.
-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Zakri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and non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n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2004년 11월 24일 접수, 2005년 2월 24일 채택)